

# “내장산국립공원 명칭에 백암산 함께 넣어달라”

### 장성군, 30일 정읍서 국립공원 명칭 변경 공청회 백암산 공동표기 당위성 설명...전북도민 의견 청취

장성군이 내장산국립공원 이름에 백암산을 함께 표기하는 명칭 변경사업의 취지를 전북도민에게 설명한다.

25일 장성군에 따르면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 공청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전북 정읍의 내장산 생태탐방원 강당에서 열린다.

장성군은 용역기관에 의뢰한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 타당성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정읍 주민,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용역기관이 장성주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4%는 “내장산국립공원 명칭에 백암산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장성군은 문화, 역사, 지리 여건 등을 이유로 국립공원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전체 면적 82km<sup>2</sup>로 장성과 정

읍, 순창에 걸쳐 있다.

백암산은 행정구역으로 장성에 속하며 내장산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인 35km<sup>2</sup>에 달한다.

백제 무왕 33년(632년)에 창건한 호남불교의 요람으로 기암괴석과 단풍으로 이름난 백암사가 백암산에 있다.

장성군은 민선 4기인 2007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에 나섰다. 전북도와 정읍시의 반발로 중단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는 내장산을 백암산보다 먼저 표기하는 방안으로 전북을 설득하고, 일본의 후지산이 속한 국립공원에 후지-하코네-이즈 3개의 산 이름을 함께 쓴 사례를 들어 당위성을 알린다는 구상이다.

2007년 논란을 반복하면 백암산과 내장산으로 국립공원을 분리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까지



장성군이 오는 30일 정읍 생태탐방원에서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 변경 공청회’를 연다. 사진은 장성 백암사 단풍. <광주일보 자료사진>

검토 중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위기로 인해 실내에서 열리는 공청회의 참석 인원에 제한을 뒀다”며 “의견서를 통해 더 많은 전북도민의 뜻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버려진 창고에서 마을 흔적 되찾다

### 장흥 마을문화제 다음달 30일까지



버려진 창고에서 주민의 애환을 담은 사진과 글을 담아 전시하는 시골 마을문화운동이 눈길을 끈다.

25일 사단법인 장흥문화공작소에 따르면 장흥 마을문화제 ‘우리 마을로 간다’가 지난 20일 장흥군 장흥읍 평장리 새마을창고에서 개막해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마을 사진 160여점, 주민의 애환을 담은 글 10여편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 창고를 가득 채웠다.

인구 감소로 50년 뒤면 소멸할지도 모르는 마을의 역사를 간직하려는 노력이자 농촌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문화운동인 셈이다.

마동욱 작가는 “고령화에 피폐해져 가는 마을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뜻밖에 큰 반향을 얻어 함께 여러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방석 평장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고단한 역사를 관통해 온 역사의 애환이 담긴 사진, 삶의 흔적, 이야기를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며 목격한 아픈 기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마을 지킴이로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주민주도형 ‘나주호 수상태양광발전 사업’ 재시동

### 사업추진위 주민설명회 개최 “소득 창출” “환경파괴” 찬반 여전

주민 주도형 ‘나주호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재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이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나주시 다도면 주민들로 구성된 ‘(가칭)나주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추진위원회’는 지난 24일 나주호 야외 수변공원에서 주민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추진위는 설명회에 앞서 인허가 관련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나주시를 각각 방문해 ‘주민주도형 수상태양광사업’ 유치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농어촌공사는 나주호 수면 임대권자이며, 나주시는 개발행위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사업 주체인 추진위에는 다도면 지역발전협의회, 부녀회, 방방대, 여성농민회 등 20여개 사회직능단체에서 활동 중인 농업인과 청장년 등 5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상태양광 건립 방법과 절

차,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나주시 한 관계자는 “나주호 환경 파고를 염려해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찬성 측 주민들은 공해 발생이 전혀 없는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를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 주민들은 지역의 수려한 관광·휴양 자원인 나주호 수면에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경우 후손들에게 두고 두고 욕을 먹게 된다는 환경보존 측면을 내세우며 반대했다.

흥기범 추진위원장은 “수몰지인 다도면은 나주에서 경제 기반이 가장 취약한 산간농촌지역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지역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주민 대다수가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동의하고 있지만 반대여론도 성의껏 수용해 환경과 경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당초 농어촌공사가 지난 2018년 12월



주민참여형 60MW급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나주시 다도면 나주호. <광주일보 자료사진>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로 추진했으나, 공사의 태양광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자 잠정 중단했다. 당시 공사는 1800억원을 들여 설비용량 100MW급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나주호 120만100㎡(만수면적의 15%) 수면에 설치하려고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이 잠정 중단된 이후 민간업체 A사가 발전용량을 60MW급으로 축소해 ‘주민 직접투자 방식’의 주민 참여형 제안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찬성과 반대로 갈려 진통을 겪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담양 용면초등학교, 직접 만든 과실차 세트 기탁

담양군은 최근 용면초등학교 학생들이 용면사무소를 찾아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전해달라며 직접 만든 과실차 42세트를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생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예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돼 대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자필 편지와 과실차 세트를 준비했다.

김경수 용면초 교장은 “면사무소에서 독거노인

들을 위해 김장나눔 행사나 이불세탁 봉사 등을 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며 “여기서도 이웃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기양 용면장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과실차 세트와 어르신들께 보내는 자필 편지는 독거노인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함평군,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비대면 밀반찬 용기 신규 지원



함평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9개 읍·면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을 비대면 대체식 지원으로 전환했다.

또 대체식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스테인리스 밀반찬 용기를 신규 지원했다. <사진>

함평군은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결식 어르신 가정 400여가구에 각종 밀반찬을 무료로 전달할 방침이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 名 作 名 作 名 作

광화문父子작명가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 당시 白山 선생

###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作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